

이모저모 5일 관문사 철야 관음정진



◇ '국난극복 참회 대법회'의 첫 실례행사로 열린 천태종 관문사 법회. 이자리는 개원을 앞둔 관문사의 첫 대외적인 행사장이 됐다. 법회 장인 옥불전에는 5천여명의 불자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대성황을 이루었다.



◇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4일 밤9시부터 이른날인 5일 새벽3시30분까지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옥불전에 모여 동체대비 구원을 위한 철야 관음정진을 했다. 간절한 자비심과 투철한 수행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더위도 아랑곳 않고 관음주력에 열심이다.

관문사 첫 대외 행사

○... 이날 법회는 오는 10월11일 관문사 개원 법회에 앞서 개최된 첫 대외적인 행사이기도해 참석한 교계지도자들은 경내를 둘러보며 시설에 감탄.

철야정진 1천 불자 동참

○... 4일 철야 관음정진은 오후9시 4백여명으로 시작더니 오후10시40분 법회시간을 앞 둔 10시경 각 사찰별로 토요법회를 마친 천태종도들이 모여들어 1천여불자가 동참. 관음전에서 각자 앉은 자리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는 염송 소리 속에는 국난극복의 간절한 원력이 담겨 있는 듯. 죽비를 든 구참보살 50명이 넓은 법당을 오가며 즐고있는 신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건시장 기원사 '눈길'

○... 취임후 첫 종교계 행사에 참석한 고건시장의 기원사 목심한 불자인 부친 고형곤박사에 대해 언급해 눈길. 고 시장은 "가진것은 불교를 연구하신 학자로서 어려서부터 관심가지고 자라왔다"고 밝히고 "불교사상은 대자대비의 공동체정신으로 어두운 시대를 환히 비추는 등불"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씨 "서로 위로하자"

○... 신홍사법회에 참석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장세종 전 안기부장 이상우변호사 이원영 전 문공부장관 최열근 전 서울시교육감 이은수 전 해군참모총장 민정기 전 수석 등을 대동. 전 대통령은 기원을 통해 "증오와 원망은 마음을 병들게 할뿐이고 그 마음의 병은 결국 또 다른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교계·정계인사 대거 참석

○... 이날 법회는 13개 종단대표 각 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국민회의 연동회 박상규회장 자민련불자회 박철민회장 한나라당불자회 함종현회장을 비롯, 권익현정각회고문 현영수 자민련부총재 이한동한나라당부총재 박준병자민련사무총장 김용갑 이양희의원 등이 자리했다.

10일 대전 '참회 영산대재' 이모저모

민·관·군 하나되는 행사

○... 10일 국난극복 영산대재는 대전 엑스포 광장에서 열린 첫 일반행사로 기록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엑스포재단 박병익 이사장은 "국난극복에 민·관·군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행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요식맨 가랑비만

○... 정마기간 중에 봉행된 영산대재는 1부 법요식의 끝부분 '우리의 다짐'이 낭독되는 순간부터 빗방울이 뿌리기 시작해 사흘사흘을 순창할때는 폭우로 돌변. 동참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행사를 도왔다고 한마디씩.

관음종 합창단의 찬불가

○... 국대민간과 예수재를 겸해 열린 영산대재는 식순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를 진행. 법회 분위기가 더욱 경건. 육군 군악대의 힘찬 주악에 맞춰 2백여명의 관음종 연합합창단(지휘 정옥녀)의 찬불가가 알뜰미음 지구탑 모형 조형물 아래로 장엄하게 퍼졌다.

신도복장 회색으로 통일

○... 질서정연하게 자리잡은 4천여 대중속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창녕 법사사에서 참여한 1천여명의 불자들. 회색 조끼와 바지로 신도복장을 통일해 법회장에 입장하면서부터 주목받았다.

박찬호·박세리의 고향

○... 법회 장소인 대전이 최근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골퍼 박세리 선수와 투수 박찬호 선수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화제. 이날 2부 영산대재 앞서 사회자는 우중 속에서 강행된 영산대재의 참 뜻을 일깨우면서 박찬호, 박세리 두 선수에게서도 그 뜻을 확인하고자 설명.

日 스님 '국난극복 의지에 감동'

○... 에즈레도시노리 일본불교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계의 국난극복 의지에 감동받았다"고 말해 박수.



◇정마기간에 열린 대전 엑스포광장의 대참회 법회는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4천여 불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통일된 복장으로 참석한 창녕 법사사 신도들의 정연한 질서 속에서 화합과 위기극복의 의지가 더욱 새롭게 다져졌다.

"성보박물관 협의체 구성"

성보박물관 관계자 간담회서 제안

전시교류·정보교환통해 포교 극대화

간담회에는 성보전시관을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사

성보박물관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사

물관 협의체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 사찰 성보박물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며 교류전시, 기획 전시, 정보교환, 일반 박물관과의 교류 등을 추진하며 성보박물관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보박물관을 통한 포교도 중요한 역할로 거론됐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성보박물관 건립이 중단적인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찰환경과 문화 역사적 배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박물관의 설계모델과 운영지침을 중단이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통도사 박물관장 박한스님은 중단에 대해 "성보박물관 건립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보박물관 관리 소임을 맡는 스님들에게도 증빙상의 직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용주사 일장사동 13개 조계종교부서가 추진중인 성보전시관 건립이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교환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단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통도사 화엄전에서 처음으로 열린 성보전시관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성보전시관의 건립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한 의견이 다각적으로 제시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관한 이날



◇조계종 성보박물관 관계자 첫 간담회가 9일 통도사에서 열렸다.

부처님께서 아이보살에게 이르셨다. "무엇이 가장 급한가. 미망히 몸과 마음을 바로 하며, 눈·귀·코·입·손·발을 바로하는 일이다. 또 안팎을 단속하여 욕심을 따르지 말고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고 행동이 한결 같아야 한다. 먼저 잘 생각하고 헤아려 고요한 마음으로 일해야 이를 진정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경솔하면 모처럼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누워침만따라게 될 것이다."

두달전 LPGA 챔피언십 제패에 이어 지난 7월 98US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 우승, 세계골프여왕에 등극한 박세리(21)는 마치 <무량정수동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볼이 연못으로 굴렀을때 잠시 실망했다. 그러나 감낼 수 없었다. 다시 생각하니 머리가 맑아졌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경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 시련은 오히려 투혼을 불러 일으킨다." 연장 18홀에서 연못가 수족목으로 공이 떨어졌을때 박세리는 해 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신발과 양말을 벗었다. 시커멓게 탄 종아리와 하안발이 관중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마치

목어

박세리 처럼

막 사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속에서 침착하게 스윙을 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 제일이 됐다.

그녀는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언제나 똑같은 표정이다. 본인은 감정표현을 하는데도 흔들림이 없어 보여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는 다른 선수를 의식하거나 갤러리의 응원에 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플레이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드넓은 그린에서 펼쳐는 자기와의 싸움이 박세리에게는 선(禪) 수행이었을까. 그 래서 항상 그자리(중심)인 가.

"이제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으며 골프가 무엇인지 알게됐다. 꿈꾸던 일이 현실로 이뤄졌으나 세계 1인자는 아니다. 그 방향으로 출발했을 뿐이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우리 모두가 박세리처럼 눈·귀·코·입·손·발·마음을 바로하여 겸손하며 행동이 한결같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않고 최선을 다하면 IMF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텐데...

봉은사 주지 추천에 대한 중앙승가대학교의 입장

먼저 미래의 종단을 책임지고 불교중흥을 선도해 나갈 도제를 양성해내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종단 유일의 정규 승가교육기관으로서 오는 7월 20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봉은사 주지추임 추천을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좋지 못한 의견표출과 사태로 인하여 그 동안 승가대학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중도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하여 저희 승가대학 전 구성원 일동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봉은사 대중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승가대학을 정적정단, 이익집단,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순수하지 못한 단체로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전후사정과 과정을 밝힘으로서 승가대학과 봉은사와 관련한 진실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중앙승가대학교와 봉은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주지하시피 봉은사는 지난 88년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회생과 정화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사찰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봉은사는 승가대학의 당시 동문회장인 성문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지금까지 상주하고 있는 승가대 동문출신의 스님들이 대중으로 참여해 살게 됨으로서 명실상부한 중앙승가대학교의 재정지원사찰로서 일정금액의 예산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학교운영과 교육보수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94년 개혁회의 당시 학교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종단에서 학교지원예산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시점으로 학교와 봉은사는 종단의 법적, 제도적으로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그 당시 학교운영협의회에서 추천한 승가대 동문회장인 무상스님이 주지소임을 맡고 마한기자로 승가대 동문들이 주요소임을 계속해서 살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운영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인연 있는 사찰로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학교의 봉은사 주지 후보 추천과 그 과정에 대하여 오는 7월 20일 봉은사 주지 임기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차기 봉은사 주지 후보로 나서거나 거론되는 3인이 있었다. 바로 현 봉은사 주지 무상스님, 부주지 원혜스님, 동문회장 효종스님 등이 바로 당사자들이었다. 이들 3인은 그 동안 성문스님, 무상스님 등이 학교의 협조와 추천을 얻어 총무원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았던 지난 사태에 비추어 학교의 협조와 추천을 희망하여 왔었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에선 이들 3인 모두가 동문, 명예동문으로서의 인연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한 1인에게 지지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능한 한 3인이 합의하여 한 사람을 단일화해줄 경우 학교의 협조를 약속하였었다. 그러던 중 현주지 무상스님이 지난 6월 24일 후보사퇴를 공식 선언하는 것을 시점으로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처음으로 교직원, 교수, 동문, 학생, 봉은사, 개운사 대표로 구성된 제2차 '학교 운영협의회'를, 지난 6월 30일 개최하게 되었고, 이 회의에 봉은사를 대표하여 총무원장님과 참관인으로 봉은사 상주 대중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결과는 원혜스님과 효종스님 2인 가운데 1인을 단일화하기로 논의하고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6일 제3차 운영협의회까지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더불어 단일화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인 모두를 운영협의회에 추천하고 양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는데 동의하는 약속을 받아줄 것을 아울러 당부하였었다.

그러나 이후 소위원회의는 몇 차례 모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과 없이 지난 7월 6일 '제3차 학교 운영협의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물론, 이 회의의식상에는 봉은사를 대표하여 총무원장님과 봉은사 대중들이 다수 참여하였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단일 추천후보로 결의하기로 논의하고, 그 결과의 수를 여부부 양측 대표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효종스님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반면, 봉은사측에서는 운영협의회의 인적구성을 문제삼아 결과물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사를 표명하고 모두가 회의의식을 이탈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협의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효종스님을 단일 주지 후임으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다.

3. 봉은사 대중의 일방적 학교 음해에 대하여 먼저 봉은사 대중의 설득력 없는 일방적 음해와 모략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자신들의 뜻과 의지대로 임의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후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승가인 담지 못한 언행을 일삼아 승가대중을 음해하고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승가대학을 졸업한 동문들로서 교외의 합법적 회의기구와 결과를 무시하고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인간적 연민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봉은사 대중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처음부터 학교운영협의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부당성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차례의 공식적 회의 참석과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함께 논의과정을 진행해 놓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기모순이 분명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 봉은사 대중이름의 성명서는 봉은사 주지는 봉은사 대중 가운데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지 임명을 총무원장님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봉은사는 분명 총무원장님이 임명권을 갖는 공할일이 분명하다. 이는 승가대의 대중들 가운데 한사람도 이의를 달지 않는 불변의 사항이다. 종단과 학교, 봉은사를 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봉은사 주지 소임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효종스님을 운영협의회의에서 추천한 것도 그 가능성 가운데 한사람을 추천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봉은사 대중들은 더 이상 봉은사 대중이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서 배타적이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소승적인 자세를 털어 버리고 본래 승가의 모습과 양상으로 누가 주지소임을 맡게 되더라도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더 이상 학교를 음해하고 승가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여러차례의 언행을 삼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시 한번이라도 같은 언행을 일삼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 승가대학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불기 2542년 7월 10
중앙승가대학교 운영협의회 · 총동문회 · 총학생회 일동